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

프롤로그 - 이름 없는 자의 자리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읽어주세요.

당신은 아직 영웅이 아니다.

누구도 당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먼저 배운 자다.

이 세계에는 신이 없다.

기도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대신 바다로 흘러가고, 달빛에 번지며, 땅속으로 스민다.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부른다.

바다는 되돌려주고,

달은 가능성을 비추며,

대지는 대신 짊어진다.

그러나 축복이 되돌려주는 것은
대개 선물보다 대가가 먼저다.

당신의 인생 역시,
대가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살아 있었기에—
그 누군가는 선택한다.

바다의 공주가, 당신을.

제1장 - 뒷골목의 파도 소리

당신은 바다를 본 적이 없다.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에서
이 말은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바다는 풍경이 아니라 소문이었다.

당신이 알던 것은 골목뿐이었다.

골목은 길이 아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남겨진 틈,
빛이 들어오지 못한 채 습기만 고인 공간.

벽에는 소금이 말라붙어 하얀 자국을 남겼고,
그 자국은 오래된 상처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손끝으로 긁으면 부서지는 소금 결정이
당신의 손톱 밑에 끼었다.

바람은 늘 썩은 기름 냄새를 실어 왔고,
밤이 되면 술병 깨지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당신은 그 소리로 시간을 잼다.
해가 졌는지,
누군가 맞았는지,
오늘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아남는 법은 생각이 아니라 반사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각도,
상대의 어깨가 굳는 순간을 읽는 법,
칼이 숨어 있을 법한 주머니의 무게를 짐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나는 쪽을 믿지 않는 것.

그날도 그랬다.

당신은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아
하루를 삼키듯 버티고 있었다.

그때 들렸다.

“철썩.”

분명 파도 소리였다.

이곳엔 바다가 없다.
그런데도 소리는 명확했다.
돌벽이 울릴 정도로 가까운 파도 소리.

당신은 고개를 들었다.

푸른빛과 흰빛이 골목을 메웠다.
달빛과는 달랐다.
차갑지 않았고, 눈을 찌르지도 않았다.

마치 골목에 바다를 데려온 것처럼,
공기가 바뀌었다.

빛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내려다보았다.
거만하지도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살아 있는지.

“이름이…”

당신이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는 말은
당신이 한 번도 허락받아본 적 없는 말이었다.
당신은 그 말이 어쩐지 무서웠다.
허락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배신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끝에 푸른빛이 맺혔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키면 폐 속이 잠기는 느낌이 들었다.

상처가 먼저 반응했다.

낮지는 않았다.

다만 통증이 파도 아래로 잠겼다.

당신은 알았다.

이건 하늘빛 바다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진 이는
딱 한 사람.

(사사야키 리네).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의 공주.

“일어나. 나랑 가자.”

당신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오래 버텨온 온기였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골목의 냄새가 멀어지고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다.

당신은 처음으로,
바다를 향해 걸었다.

제2장 - 항구 위의 왕국

도시는 수직으로 쌓여 있었다.

위층은 인간의 도시,
중층은 수로와 교역의 길,
아래층은 물속의 도시.

리네는 당신을 곧장 위로 데려가지 않았다.
먼저 중층 수로로 향했다.

수로는 생활 공간이었다.
배가 지나가고,
사람이 걷고,
바다의 존재들이 숨을 쉬는 곳.

당신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어를 보았다.

▣ 인어 - 바다의 미

인어의 피부는 희었다.

그러나 인간의 흰 피부처럼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빛을 머금고 있었다.

빛이 닿으면

피부 아래의 혈관이 아주 은은하게 비쳤고

그 색은 붉기보다는 산호빛에 가까웠다.

머리카락은 길고 젖어 있었지만

축 늘어지지 않았다.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은 바람이 아니라 물결처럼 따라왔다.

그 미는 형태가 아니라 리듬이었다.

숨 쉬는 속도,

몸을 기울이는 각도,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옷감이 몸에 달라붙는 방식까지.

얇은 옷은 물을 머금어 색이 짙어졌고
속살은 가려져 있었지만
형태는 숨길 수 없었다.

가슴은 파도처럼 움직였다.
숨을 쉴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자연현상처럼.

그 모습은 노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완전한 자기 존재감에 가까웠다.

리네가 말했다.

“여긴 보는 게 무례가 아니야.”

“바다는 숨기지 않거든.”

▣ 어인 - 노동의 미

어인들은 더 인간에 가까웠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차이는 또렷했다.

귀 뒤의 얇은 아가미 흔적,
손가락 사이의 미세한 막,
늘 촉촉해 보이는 피부.

그들의 눈은 어두웠지만
빛을 받으면 검푸른 층이 겹겹이 갈라졌다.

어인의 미는 장식이 아니라 기능이였다.
단단한 허벅지, 넓은 어깨,
젖은 옷자락이 몸에 달라붙었다가 걸음에 맞춰 떨어지
는 반복.

그 모습은 유혹이 아니라
살아남아온 몸의 기록 같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인의 발목에서 떨어지는 물을 뺨으며 뛰어
놀았고,
누군가는 그 물을 손끝에 찍어 이마에 바르며 웃었다.

리네는 당신을 왕궁으로 이끌었다.

왕궁은 완전한 육지가 아니었다.

기둥 아래로 바닷물이 흐르고,

바닥에는 얇은 수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왕궁이 바다 위에

허락받아 서 있는 느낌이었다.

추가 일상 챕터 A - 왕궁의 하루, 바다의 방식

왕궁의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하인들은 뛰지 않았다.

급하게 걷지 않았다.

모든 움직임이 파도처럼 일정했다.

당신은 그게 불편했다.

뒷골목에서는 조용함이 곧 위험이었으니까.

소리가 없으면 누군가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조용하면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러나 이곳의 조용함은 다르다.

여기선 조용함이 질서였다.

식탁은 거창하지 않았다.

빵, 생선 수프, 소금, 따뜻한 차.

리네는 왕좌에 앉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건 작은 행동이었지만,

당신에게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권력은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라 배웠는데,

리네는 내려다보지 않았다.

“여긴… 천천히 살아.”

리네가 말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왕국의 생활 방식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로 가면

왕궁 아래로 바닷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기둥 아래의 물은 소리마저 낮았다.
왕궁이 떠 있는 배처럼 느껴졌다.

리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항구 쪽을 향해 아주 작게 손을 들었다.

멀리 수로에서 인어가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다.

이곳의 공존은
‘서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리네는 갑자기 당신을 돌아보며 물었다.

“바다, 좋아해?”

당신은 대답을 망설였다.

좋아한다는 말은
붙잡고 싶다는 말이 될까 봐 두려웠다.

리네는 그 망설임을 다그치지 않았다.

“언젠가 좋아할 수도 있지.”

그 말은

바다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쓰는 말 같았다.

제3장 - 바다의 잔물결

훈련장은 거칠었다.

바닥은 돌과 흙이 섞여 있었고
넘어지면 반드시 살이 까졌다.

첫 훈련은 “구르기”였다.

당신은 몸을 던졌다.

어깨가 먼저 바닥에 부딪혔다.
충격이 뼈를 타고 올라왔다.

다시 일어나려다
무릎이 바닥을 긁었다.

천이 찢어졌고
피가 바로 올라왔다.

“다시.”

세 번째 구르기에서
턱이 바닥에 부딪혔다.

딱.

입안에 피가 고였다.
혀로 더듬자
어금니 하나가 깨진 게 느껴졌다.

훈련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전장에선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칼이 던져졌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잡았다.
도구를 잡듯, 생존을 잡듯.

그때 교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잡지 마.”

숨이 멎었다.

“줘어.”

짧은 두 단어가
당신의 손목과 심장에 동시에 박혔다.

잡는다는 건 순간이다.
뒷골목에서 당신은 늘 무언가를 “잡고” 살았다.
빵 조각도, 상대의 손목도, 도망칠 기회도.
잡는 건 빼앗는 행위이고,
빼앗는 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쥐는 것은 달랐다.

쥐는 건 지속이다.
놓지 않는다는 뜻이고,
놓지 않기 위해 힘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깨달았다.

여기서는

힘을 다 써서 잡으면 죽는다.

힘을 다 쓰면 손목이 굳고,

손목이 굳으면 방향을 바꿀 수 없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전장에서 “도망칠 길”이 사라진다.

당신은 다시 칼자루를 쥐었다.

엄지를 놓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감싸 쥐되

손목은 풀어 두었다.

피가 자루를 적셨다.

미끄러웠지만 손을 바꾸지 않았다.

“피가 난다고 손을 바꾸지 마.”

“피는 네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다.”

훈련은 계속됐다.

넘어짐

구르기

일어나기

다시 구르기

칼을 쥐고 버티기

손바닥은 까져 피가 났고
무릎은 붉게 부어올랐다.
흙과 피가 섞여 상처가 까맣게 변했다.

축복은 상처를 낫게 하지 않았다.
대신 쓰러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게 바다의 잔혹함이었다.

훈련이 끝났을 때
당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의 차가움이
상처 난 피부에 그대로 닿았다.

훈련 뒤의 왕궁은 더 조용했다.

당신은 손을 씻으려고 물을 받았다.
물이 상처에 닿자
숨이 턱 막혔다.

따가움이 아니라
살이 벌어지는 느낌.

피가 다시 배어 나왔다.

당신은 이를 악물고 씻었다.

뒷골목에서는 상처를 씻지 않았다.
씻으면 아프고,
아프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픈데도 씻는다.

살아남는 방식이 다르다.

그날 밤, 리네가 약을 가져왔다.
약초 냄새에 바다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리네는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당신의 상처 가장자리를 아주 살짝 만졌다.

푸른빛이 번졌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피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대신 통증이 정리됐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미안해.”

리네가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였다.
당신은 그 진심이 더 무서웠다.

진심은 사람을 묶는다.

리네는 이어 말했다.

“그래도… 네가 선택하길 바랐어.”

그녀는 당신을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늘 선택을 남겨 둔다.

그게 바다의 방식이다.

창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왕궁 아래로 흐르는 물의 소리.

그 소리는
당신의 피와 같은 리듬으로 느리게 뛰었다.

그날 밤 당신은 깨달았다.

이 왕궁은
당신을 구해준 게 아니라,
당신에게 돌아갈 곳을 만들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생기면
전장은 더 잔인해진다.

지킬 것이 생기니까.

리네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했어.”

칭찬은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깊게 박혔다.

리네는 바다처럼 과장하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적고,

그 적음 때문에 무겁다.

당신은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뒷골목의 생존자가 아니라,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의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을.

바다는 묻는다.

대답은 늘 버터넨 자의 몫이다.